



“아재요?!”

“우리 부장님은 다 좋은데 특하면 고함을 지른단 말이야! 귀가 멍해.” “그래?! 그래도 그 정도로는 앓는 소리 하지도 마. 우리 부장님은 고함은 안 치는데 ‘쫄생이’ 중에 상 ‘쫄생’이야. 밥 한 번 사는 일이 없어. 심지어 부하 직원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도 ‘더치페이’하래. 어휴 ‘쫄생이!’” “후훗. 그러나 그 정도로 한숨 쉬기에는 아직 멀었다고요. 우리 부장님은 고함도 안 지르고 밥도 잘 사는데, 말이 많아 말이. 잔소리, 잔소리. 아주 귀에 딱지가 앉겠어!” “푸할할. 그래도 우리 부장님보다는 다들 나은 걸. 우리 부장님은 꼰대 중의 꼰대, ‘꼰대 3관 왕’이야. 말만 하면 잔소리에,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말 자체가 고함이야. 게다가 밥 먹으러 가면 밥값을 불쌍한 과장님이 내지. 말 첫마디가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돼.”

에고, 젊은이들 부장님 욕 좀 그만하세요. 부장님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도 나이 들면 꼰대 부장님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 부장님, 부장님들은 어찌다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꼰대”가 되셨고, 썰렁한 “아재 개그”의 달인이 되셨습니까? 자고로,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합니다. 부장님들도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부장님, 선배님 말씀 들으세요. 선배님 말씀 듣지 않고 지갑은 닫고 입만 열다가는, 닫힌 지갑에 곰팡이 슬고 열린 입으로 먼지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부장님들이 꼰대 소리 듣지 않고 훌륭한 부장님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친구가 되기 위한 모범 성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성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요셉 성인께서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요셉 성인께서는 무척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아하고 신심 깊어 보이는 마리아가 어찌다가 저런 입에 담지 못할 일을 저질렀을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깊은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 번 생각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세상에 드러내면 마리아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신심 깊고 사려 깊은 요셉 성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모두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다른 이의 아픈 마음을 되짚을 줄 알면 너그러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고 사려 깊은 요셉 성인께서 이 모든 일을 하느님 뜻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어여쁜 아기로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재들도 의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가족과 주변을 돌보면 아주 의롭고 맛있는 아재가 될 것입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 대방동본당 주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7,10-14
화 답 송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다.
제 2 독 서	로마 1,1-7
복 음	마태 1,18-24

우리는 평안한가?

신호열 요셉 신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본당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른 무엇보다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이 있다.
대부분의 본당 사제들이 겪는 문제이지만 사목협의회 임원을 뽑는 일이다.
사목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기에 때로는 연임을 하는 일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임을 원하지 않고 기꺼이 사목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꺼린다.

나서서 신자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싫고 나 자신의 일도 바쁘는데 신경 쓸게 늘어나는 게 싫은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로 인해 본당 신자들이 반 토막 난 것도 봉사자를 뽑는 게 더 어려워진 현실이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지 본당 회장을 시작으로 여성부회장, 총무...등등 평소 생각하고 있던 신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호소를 하고 부탁을 한다.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만 그래도 못한다고 하는 신자를 강제로 봉사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제안을 드리고 정중한 부탁을 드려도 거절당하는 일도 많아서 부탁을 드리는 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아무나 봉사자로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을 본당 임기 중 두 번이나 해야 한다면 그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이렇듯 작은 본당에서도 봉사자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신중하게 책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원활하게 본당의 일이 돌아가게 된다.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일을 맡게 된 경우는 말이 많아지고 기꺼이 도우려는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된다.

사목위원을 지냈던 한 신자가 어느 날 이런 부탁을 했다.

“신부님. 어떤 교구 사제가 대통령 죽으라고.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열변을 토했다던데 신부님은 그러지 마요. 나중에 그래도 될 상황이 되면 그때 하시더라도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신부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정의평화위원회 동료였다.

그 신자에게 이런 답을 해줬다.

“못 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과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대통령이 이 나라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자인데 끊임없이 들리는 말들이 법사가 어떻고 점괘가 어떻고 위조에 조작에...국제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걸핏하면 술이요 외교무대에 나가면 실수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얻는 것은 없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거나 없애버리고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나 몰두하고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힘없는 말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다간 나라가 망가지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말을 못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본당 사목회 임원을 선정하는 데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정치 얘기를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잘하면 응원해 주고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이미 접었다. 정치의 첫째 덕목은 국민을 평안하게 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복지에 힘쓰는 것이다. 정책도 없고 복지도 망가지는 현실에 우리는 평안한가?

성탄이 다가온다.

왕 중의 왕인 그분이 온다. 정작 본인은 왕이기를 거부했던 사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사람들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현실의 왕이었으면 하는 것은 헛된 바람일까? 왕이 아니라 국민의 종으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맞이하고 싶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신념으로

김순화 베로니카 시인/ 가톨릭문인회

차를 산 지 10년 동안 이상하게 좌측 미등만 계속 말썽이다. 이번에도 왼쪽 미등이 켜지지 않아서 퇴근길에 카센터에 들렀다. 미등을 교체하면서 좌측 미등만 3개월마다 자꾸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님에게 물어 보았다. 본인도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정비소에서 일하다 보면, 희한하게 고장 난 곳만 계속 고장이 나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했다.

차 수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고장 난 곳에서 계속 고장이 나는 것이 비단 기계뿐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돌아보면 나 역시 계속 탈이 나던 곳에서 다시 나의 나약함을 발견하곤 한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상대방에게 성질을 부렸던 일, 내가 옳다는 자만심에 빠져 타인에게 함부로 말한 일, 헛된 욕망과 탐욕에 저지른 잘못들을 십자가 앞에서 수십 번 고해하지만, 또다시 같은 문제로 내 가슴을 찌른다.

이런 나의 부족한 마음을 가다듬고자 올해 초부터 매일 미사를 봉헌하기로 결심했다. 확실히 매일 복음을 읽고 신부님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워졌다. 그러나 희한하게 3개월에 한 번씩 침잠하는 시기가 왔다. 내성이 든 것인지 3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약속에 밀려서 미사에 종종 빠지기 일쑤였고, 다시 세속의 굴레에 따라 살아가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한동안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내 삶은 푸석했고 어두웠고 울적했다.

그렇게 세상살이에 조금씩 지쳐갈 때쯤 내게 나지막이 들려온 주님의 말씀,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 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묵시 2,3-5)라는 말이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사실 나는 10년 전쯤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해하고 용서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었는데, 시간이 흘러 다시 삶이 평탄해지자 그때 받은 사랑을 잠시 잊고 살아왔던 것 같다. 그 때 나는 주님이 나를 살렸던 것처럼 마음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나는 이웃의 아픔을 진정으로 살피기보다는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만 한 것 같아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제 다시금 가련한 나를 선택해 주셨던 당신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추락한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결심을 해본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의 신념으로, 앞으로 다시 닦쳐 올 세월의 풍화와 침식을 잘 견뎌내며 내 뭉뚱했던 마음이 당신을 향한 한줄기 빛으로 향할 때까지, 내 남은 생을 정성껏 살아내 볼 것이다.

월남동본당 계약의 궤 Pr. 2,000차 기념 주회



월남동본당(주임: 박창균 시메온 신부) 착한 의견의 어머니 Cu.(단장: 홍성출 시메온) 소속 ‘계약의 궤 Pr.’(단장: 이만호 디모테오)은 11월 22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계약의 궤 Pr.’은 1982년 12월 5일 창단하여 남성 9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계약의 궤 Pr. 단원들은 기념 주회 후 본당 사제, 수도자 등 본당의 많은 단원들과 함께 2,000차 주회를 축하하고, 앞으로 성모님의 군대로서 더욱 매진하기로 다짐하였다.

신앙대학 제26기 졸업미사



신앙대학 제26기 졸업미사가 12월 4일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신앙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한 26기 34명의 졸업자들에게는 졸업장과 함께 교리교사자격증(34명), 개근상(21명), 성적우수상(5명), 동창회장상(7명)이 수여되었다.

제가 죄인입니다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저는 아니겠지요

“수사에 성역은 없다, 경찰의 명운을 건다”

의지를 표명했던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피의자는 17명. 대부분 ‘이태원을 관할’하는 기관들의 책임자, 혹은 실무자급입니다. 특수본의 강제수사는 여전히 ‘용산’이라는 관할에 묶여있는 모양새입니다. 더 ‘윗선’으로 올라가자면 xxx 서울경찰청장, xxx 경찰청장 등도 책임 규명 대상이 되는데, 특수본은 이달 초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아직까지 소환 조사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한 차례 압수수색만 있었을 뿐, 인적 조사는 실무자나 중간 간부급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사퇴한 고위 공직자도 아직 전무합니다. 유가족의 심경은 분노에서 참담함으로, 이제는 허탈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조미은/‘이태원 참사 희생자’故 이지한 씨 어머니: “얼마나 더 드러나야 책임질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린애들이 웃어요. 부끄럽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 -KBS, 2211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마태 26,21,22,25

내탓이요

한 달 전부터 아기귀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 우리 별이에요. 사람들이 본다는 그 귀신, 우리 딸 별이라고요. 우리 별이가, 너무 억울해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딸 그렇게 만든 살인범이 아직 벌을 안 받아서 그래요. 뻔뻔하게,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짓말만 계속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은 은별, 나이는 열 살, 이 아파트 108동(분양동)에 사는데, 109동(임대동) 사는 친구네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민 차에 치어서 사망했어요. 현재 사고 운전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일반 분양 주민과 공공 임대 주민이 함께 살도록 설계된 아파트예요. 아파트를 지어 올리면서 일부 돈을, 저소득층 원 주민들한테 공공 임대를 주는 거죠. 여기도, 분양동이랑 임대동 사이 갈등이 있었어요. 양쪽 갈라놓겠다고 분양동에서는 담장 설치하고, 임대동에서는 항의하고.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별이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 안 됩니다. 어차피 별이 원귀는 볼 수 없어요. /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같이 있게만 해 주세요. / 별이는 보실 수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 그거면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 별이니? / 엄마! / 별이니? 별아, / 엄마 미안해. /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별이한테 나쁜 짓 한 사람, 꼭 잡아줄게. / 나, 엄마한테 영어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유리랑 놀았어.

(우리 별이 내년이면 4학년 올라가지. 그런데 계속 축구나 하면서 놀면, 다른 애들한테 뒤처져. / 유리네 엄마는, 축구 마음대로 해도 된댔어. 그래서 유리가 우리 반에서 축구 제일 잘해. / 그 집은 그래서 임대동 살잖아. / 그게 뭐? / 임대동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야. 별이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그런데 살아야 돼. 그러고 싶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다 별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알겠지?)

별이 엄마, 잘 만났네. 지금 담장 공사하는데, 임대동 주민들이 몰려와서 난리 치고 있대네, 같이 좀 가지. / 그래요? 그럼 같이 가야지. 별이 너, 학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늦었어, 늦었어, 엄마한테 죽었다. 빨리 가야 하는데... 늦었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차에 치인 게 아니라, 담에서? 내가 만든, 그, 그 담에서? / 엄마 미안. 엄마가, 위험한 짓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그 담, 넘을 수 있을 줄 알았어. / 아냐, 아냐, 별아, 별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잘못된 거야. 엄마가 그 담을 만들어서, 너를... 내 딸을, 내가, 내가, 죽였어. 어떡해. 별아, 별아, 너무 미안해. -드라마, 2021년, 대박부동산, 8화

내가, 우리 딸 애기 제대로 해 준 적 없제? 우리 봄이, 원해서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 있어. 힘들었지만,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 (봄아, 엄마 갔다 올게, 미안하다... 봄아, 엄마 왔다. 봄아, 아이고, 우리 애가 왜 이라노?) 나는 우리 봄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내가 봄이를 죽였다고 했어. (처음 여관에 들어갈 때부터 생각한 거? 왜 죽였노?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 내 인생 발목 잡을까 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도, 봄이를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 (교도소에서 나온 후) 봄이를 따라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날, 네 엄마가 찾아왔어. (누구세요? / 네가 아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아는 사람?) 니 엄마는 봄이만 보내준 게 아니라, 내 삶도 구원해 준 거였어. -14화

달걀귀, 정말 퇴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 한 가지 뿐이야. 달걀귀가 빙의된 사람의 몸에 이름 없는 귀침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 / 달걀귀가 빙의된 사람이라면, 영매? / 달걀귀는, 퇴마사의 몸에도 빙의가 가능해. / 그럼 사장님이랑, 범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 그냥 두면, 사람들을 계속 죽일 거야. / 달걀귀가 영원히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건 아니야. 원한이 풀릴 만큼 죽이고 나면 스스로 소멸해. / 얼마나 죽어야 원한이 없어지는데요? 백 명? 이백 명? / 천 명이면, 천 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 명을 희생해도 되는 걸까?

달걀귀 넌 절대 여길 나갈 수 없어. 절대. ... 이거였어? 그때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던 거야. 엄마는, 끔찍한 재앙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던 거야. 퇴마사니까. -15화

별이 엄마는, 가난을 혐오하는, 그리고 자녀에게 공부만 하라 하고,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하는, 요즘 많은 엄마들과 다르지 않은 엄마였습니다. 또한 엄마이기에 딸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흔한 엄마였습니다. 딸이 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딸을 죽게 한 범인을 기필코 벌받게 만들어 딸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담을 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딸이 가난한 집 아이와는 친구 되지 못하게 담 친 자신이 딸을 죽게 한 것이라며 절규합니다.

봄이 엄마는, 학생 때 책임지는 아빠 없이 아이를 낳았지만, 혼자서라도 최선을 다해 잘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온 후 죽어있는 아이를 발견했고, 경찰은 당연한 듯 엄마가 봄이를 죽였다고 단정해버렸습니다. 봄이 엄마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도 몰랐지만, 그저 엄마인 자신이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내 탓'이라고 하며 스스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퇴마사 홍지아의 엄마도 퇴마사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 떠돌고 있는 원귀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의 아픈 기억을 온전히 자신이 받아들여, 영혼을 평화롭게 떠나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퇴마할 수 없는 달걀귀의 재앙을 막기 위해, 그 모든 분노와 아픔을 자신이 지고, 스스로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들 죽음에 대한 책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해야 하는 책임, 그들의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지켜야 할 책임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택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게 없는 게 아니라, 책임질 능력이 없고 책임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애초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이는 별 안 받을 궁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법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검사, 정치권력, 돈)을 찾고, 죄를 지어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온갖편법, 촉법소년)을 찾습니다. 설사 벌을 받는다 해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것에 분하다고 여길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저는 아니겠지요'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내 탓이오' 합니다. 이런 죄스런 사회를 만든 죄, 도와주지 못한 죄, 지켜주지 못한 죄, 구해주지 못한 죄에 대해 '내 탓'이라 여깁니다.

엄마와 퇴마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사랑한 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아픔 앞에서 '사랑하는 죄' 때문에 '내 탓이오' 합니다.

※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님의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구장 서리 동정

교구 신학생 방학인사

일시: 12월 19일(월) 11:00

장소: 교구청

교구/본당

신학생 동계연수

일시: 12월 19일(월)~21일(수)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 성경사무부 성경 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12월 24일(토)까지(면담 후 봉사자 활동)

문의: 성경사무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12월 기도모임

일시: 12월 19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시: 12월 22일(목) 13:30

장소: 교구청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기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취업률 76.5% 총복권 최고수준
-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등록금 전액 감면
- 간호학과 등록금 100만 원 감면
-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원서접수: 12월 29일(목)~23년 1월 2일(월)

문의: 043·270·0100~0102

2023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12월 29일(목)~23년 1월 2일(월)

모집: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문의: 입학처 051·510·0702~8, 0804~9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수강생 모집

내용: 홈토킹!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 영어

문의: 053·593·1273

2023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4일(월)~23년 2월 10일(금)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우편접수 가능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10주년 이벤트

설립 10주년 할인 이벤트

금액: 일반 2만 5천 원, 단과 1만 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교구청 직원 모집

교구청 새 청사에서 함께 일할 가사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모집: 0명

접수: 12월 21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특이사항: 신체 건강한 분,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

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6~17,19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토) 16:00~23년 1월 1일(주일)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이정준 신부),

송년파티, 해맞이행사, 신년 대축일미사

신청: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55·221·1891, 010·7542·9631

함안안나의집 입소 안내(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1~4등급 자 노인 중 시설급

여 대상자(3, 4등급 자는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주소: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번지(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정 세레나)

파랑포안나의집(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대상: 장기요양 1~3시설등급(여자어르신)

주소: 거제시 팔랑포2길52(옥포동)

문의: 055·687·4890, 010·8526·6079



남성동본당 제3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강동주(세례자 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정혜옥(안젤라)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진홍근(안셀모)

총무분과위원장: 전홍수(안토니오)

재경분과위원장: 이재호(토마스)

복음화분과위원장: 박정해(글라라)

전례분과위원장: 김귀은(데메트리아)

구역분과위원장: 허상희(골롬바)

홍보분과위원장: 김동철(프란치스코)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민진자(로사)

시설관리분과위원장: 박진우(도미니코)

여성부위원: 전순옥(수산나), 김경련(유스티나), 안영숙(헬레나)

영산본당 제2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영호(미카엘)

사목협의회부회장: 한원만(미카엘)

총무: 최은주(노엘라)

구역분과위원장: 김은숙(첼리나)

전례분과위원장: 신기옥(아나스타시아)

복음화분과위원장: 이명선(제마)

가정복지분과위원장: 하경숙(아가다)

청소년분과위원장: 심윤숙(올리나)

시설분과위원장: 이학운(마르첼리노)

가좌동본당 제7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최연명(벨라도)

사목협의회부회장: 오정자(소화데레사)

총무: 김옥련(소피아)

복음화분과위원장: 최정혜(소화데레사)

전례분과위원장: 손복이(안젤라)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정화영(소피아)

구역분과위원장: 김연숙(베로니카)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재청(시몬)

청소년분과위원장: 객상근(요셉)

시설관리분과위원장: 류재수(시몬)

홍보분과위원장: 배상근(요셉)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2월 19일(월) 19:00	중앙동성당	우리의 자리아신 주님	김수진 요한 신부(부산교구)		010·5072·5612
청년	매주(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천천히 정성껏 만든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갈드 크림 100ml
힐데갈드 로션 100ml
힐데갈드 바나 60g
힐데갈드 샴푸 400ml
힐데갈드 크림 50ml
힐데갈드 로션 5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베트남 성지순례 3박 5일-11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아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11

이경모 라이문도(진동본당)

진동본당 꾸리아에서 공소 순례 계획을 세우고 신앙의 못자리를 찾아 순례 여행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4회에 걸쳐 완주 순례 계획을 세우고 순례를 시작하였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공소에서 자라고 견진성사도 공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공소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 26곳의 공소 순례를 하면서 하느님 은총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먼저 합천 쪽을 거쳐 함양, 산청, 하동, 남해 순으로 순례를 시작했다.

8분 능선의 오지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신부님을 기다리는 신앙, 최양업 신부님이 수많은 신자를 찾아 걸어 다니면서 신자들을 만나는 것을 연상하게 만든다. 공소에서 레지오를 하며 신앙을 지키고, 4~5명의 어르신들이 오래된 공소를 지키며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며,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을 넘는 길, 하늘을 승천하는 느낌으로 찾은 신원공소.

신원면은 6·25동란 때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 곳이라는 것, 순례를 통하여 이곳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려온다. 다음 공소를 찾아 이름 모를 고개 넘어가는 길, 순례를 통하여 주위에 아름다운 단풍 구경을 시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감나무에 감이 그대로 있는 것은 자연을 사랑한 농부의 마음이겠지, 까치들의 먹이를 남겨 놓았을까? 그렇게 찾은 공소에는 우리가 올 것을 알고 공소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 주며 공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성직자, 수도자 탄생의 자랑스러운 공소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외로움이 많으면 성소가 있다'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오지 산골에서도 곳곳에 신앙생활을 하며 본당 신부님이 성체를 모셔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생각하며 옛날 나의 공소 시절도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지역은 1800년대 말 박해를 피해온 신앙선조들이 산골과 한적한 바닷가에 교우촌을 형성하고 오늘날까지 공소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순례자들에게는 매우 감사할 따름이다. 생비량공소가 있는 이 지역은 남이관, 조증이 성인 성녀가 된 부부가 신유박해 때 유배와 30년간을 보낸 곳이란 기록에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린 땅이라 생각하니 가슴 뭉클하다. '길 떠나시는 성모님'의 벽화에 왜 길을 떠날까? 묵상하게 만든 장죽공소는 매우 위험하다.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이고, 공소 출입구가 바로 찾길이라 나이 많은 공소 신자의 안전이 걱정된다. 우리는 본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 팀은 이동 중에는 차 안에서 묵주기도를 드리고 공소에 도착하면 도착기도와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기도를 바치면서 성인 호칭기도로 한국의 순교자와 마산교구 5위 복자, 순례자 9명의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매 순례 때마다 마지막 공소에서 성가를 부르며 순례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공소 벤치에 앉아 오늘의 순례 소감을 나누면서 준비해 온 간식을 먹는 보기 좋은 모습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 공소 순례밴드 가입방법: 네이버 검색창 '마산교구 공소순례밴드' 입력 -> 가입

▶ 공소 순례를 완주하신 분들 중 책자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확인 후 바로 교구 평협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5층 평협

우리 결의 하느님-권정생의 『오두막 할머니』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아동문학가 권정생은 『몽실언니』, 『강아지똥』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다. 그의 많은 작품 중 『오두막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짧지만 행복한 이야기이다.

산발 외딴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는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교회 식구 수에 맞추어 경단떡 스물한 개를 빚는다. 그리고 그동안 아껴아껴 모아둔 현금 8천 원을 봉투에 넣고는 잠자리에 든다.

막 잠이 들었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달라고 한다. 할머니는 얼른 떡 세 개를 주었다.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한 늙은 길손이 또 찾아와 배도 고프고 여비도 떨어졌다고 한다. 할머니는 다시 떡 세 개와 현금봉투 속 돈 5천 원을 꺼내 주었다.

그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한 어린아이가 찾아와서는 날이 어두워져서 길을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떡 다섯 개를 먹이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 재워 주었다.

다음날 아침 아이는 어느새 일어나 가 버렸고 할머니는 남은 떡 열 개와 현금 3천 원을 들고 교회로 갔다. 신자들과 떡 반쪽씩 나눠 먹으며 즐거운 감사절을 보내고 돌아온 할머니는 그날 밤 꿈을 꾸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젊은이와 늙은 길손과 어린아이를 만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 사람은 한 사람이 되어 인자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 저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였다. 아침에 일어난 할머니의 손에는 간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남아 있었다.

오두막의 할머니는 가난하지만 불쌍한 이들을 위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하느님께 드릴 귀한 떡인데도 이름도 모르는 낯선 이들에게 주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은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까마득한 저 하늘 꼭대기 어딘가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다. 오가며 늘 마주치는 동네 사람, 어두운 골방에서 추위에 떠는 이, 몸이 아픈 어린이, 그 모두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오두막도 외롭지 않고 따뜻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권정생은 평생 교회 종지기로 살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썼다. 검소하고 겸손한 그의 삶은 오두막 할머니처럼 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어떤 이는 선생을 이 땅 ‘마지막 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선생이 죽음을 앞두고 정호경 신부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요. 제 예금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측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 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세상 곳곳의 아이들에게 향하는 권정생 작가의 사랑처럼, 이번에 맞는 겨울이 모두에게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김은정 교수님의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